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5877.2만명... 공영 주차공간 확충

(전년비 29.3% ↑)

올해 10월까지 전국공항 이용객 15% ↑
엔화약세·황금연휴에 국제선 늘어
인천공항 여객수, 지난해 기록 넘어
예상 승객 7079만명... 역대최대 전망
영종역 공영주차장에 401면 공간 조성

올 10월까지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엔화의 약세로 일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전년 여객수를 이미 뛰어넘어 역대 최대 기록도 달성할지 주목된다.

13일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김포와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은 1억2654만 347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억1006만 9108명 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항의 이같은 증가는 올해 엔화의 약세로 일본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고, 황금연휴를 이용해 동남아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국제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

가 크게 증가했다. 인천공항의 여객수는 5877만26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544만5496명과 비교해 29.3%가 늘었다. 이 기간 인천공항의 여객수는 지난해 총 5613만1064명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국 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공항의 예상 승객은 707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058만명보다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일본 노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천공항의 여객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과 청주 등 지역 공항도 활기를 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공항의 이용객은 같은 기간 1292만624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면서, 항공기 운항 편도 이 기간 7만7931편으로 전년 같은 기간 6만7421편보다 1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주공항을 이용한 승객도 391만3458명으로 30.2% 늘어, 이달 6

일 기준 400만명을 넘어섰다.

청주공항의 이같은 증가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16개 국제선이 운항되면서 여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포공항의 이용객은 1923만 30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959만9263명보다 1.9% 감소했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는 공항과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 공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이 포화 상태됨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 공영주차장의 이용객 유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구 운봉동 일원에 위치한 영종역 공영주차장의 대규모 확장공사를 마치고 지난 1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존 영종역 공영주차장 178면에서 223면을 추가해 총 401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으며 20억원(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서울시, ‘강북 전성시대’ 대개조 본격화

월계2 택지개발지구 수정 결정안 가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계획 담겨
올해 연말 최종 결정 고시 방침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 시대’ 청사진에 맞춰 주거공간의 혁신 기반이 마련됐다.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되면서 서울 강북권 대개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희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강북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등 변화된 공간적 여건과 중랑천, 경춘선 숲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담겼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노원구 월계동 미성·미릉·삼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월계2지구는 6700세대의 대규모 주거복



월계2 택지개발지구 조감도. /서울시

합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광운대 역세권 물류 부지와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계2지구 서측은 1호선 철도, 동측은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으로 단절돼 있다.

광운대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철도와 동부간선도로(중랑천)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를 신설, 확장함에 따라 이번 개발계획에 이를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동서 간 도로의 폭을 넓히고 순환 도로체계를 새로 만들어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 시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등 인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상업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복합용지를 구획,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동부간선도로와 인근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도 계획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면서 받는 공공기여는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상업문화·생활 공유·수변 친화 길을 넣었다.

수변 친화적 주거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최고 높이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로 설정했다.

시는 내달 초 재열람 공고 이후 이르면 올 연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남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월계2지구가 상계·중계와 더불어 강북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광운대역 중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교육청, 내일 여학생 축구대회 운영

‘제4회 공차소서 축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6일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축구장에서 ‘제4회 공차소서(축구)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학생 스포츠클럽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된 ‘공차소서’는 ‘공을 차자! 소녀들이! 서울에서!’를 줄인 말로,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기업 무협약을 맺고,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차소서 축제에는 지난 8월부터 총 64팀이 리그전을 거쳐 최종 4강에

오른 중·고교 8팀(160여명)과 교사, 교육청,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공차소서’ ‘여신’ 등 여학생들만의 스포츠 축제를 운영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풋살 종목에 여자부를 신설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1학생 1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여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으로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위촉

대학생 69명, 홍보서포터즈 31명 구성

서울시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에 참여할 100명의 시민위원과 14명의 전문위원을 확정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위원은 42개 대학의 대학생 69명과 10~60대 다양한 계층의 홍보 서포터

즈 31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으로는 독립운동가 윤익병 선생의 후손 윤태근씨와 조소양 선생의 후손 조인래씨, 김대하 광복회 서울시 지부장, 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소 소장, 손혜리 서울시 축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위원 김영민씨 등이 선정됐다. /김현정 기자

광주FC, 운영자금 부족... ‘빚 54억’ 발생

2030년까지 청산 못하면 자동퇴출

프로축구 무대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고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FC가 운영자금이 부족해 54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30년까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1군 무대에서 자동 퇴출 될 수 있다는 우려

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FC 이사회가 지난해 24억원, 올해 3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체류 비용, 외국인 선수 영입, 선수단 급여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FC는 대출 자금을 갚지 않아 이자 포함 55억원이 빚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광주FC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광주시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40억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FC가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1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K리그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1군 무대에서 자동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주민동의 우선 대원칙 따라”

전남 목포시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용궁배수지 태양광발전 시설 추진이 무산됐다.

시는 용해동 양을산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간 임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올해 초 용궁배수지 4만 4272㎡ 중 9133㎡(20%)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용궁배수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주민들은 배수지의 환경 오염 우려와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중단 이유로 “거주민들의 정서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목포 용궁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무산